

여우의 이중성과 불교적 변신의 의미 - 삼국유사설화를 중심으로 -

The Duplicity and Buddhist Disguise of Fox - Focussed on the Narrative in Sam-kuk Yu Sa

저자 (Authors)	이윤경 Lee Yoon-kyong
출처 (Source)	돈암어문학 12 , 1999.8, 257-268(12 pages) The Donam Language & Literature 12 , 1999.8, 257-268(12 pages)
발행처 (Publisher)	돈암어문학회 The Donam Language &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588201
APA Style	이윤경 (1999). 여우의 이중성과 불교적 변신의 의미 - 삼국유사설화를 중심으로 -. 돈암어문학, 12, 257-26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1/27 10:0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여우의 이중성과 불교적 변신의 의미

— 『삼국유사』 설화를 중심으로 —

이 윤 경*

I. 서론

동물담과 동물민속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연구 성과도 많이 축적되었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이 용·호랑이·말·뱀 등의 동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의 동물은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부분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인간으로 나타나는 변신동물담이 주된 패턴일 때 가장 대표적인 짐승으로 뱀·호랑이·여우의 순위를 보이며, 그 출현 빈도수가 뱀·여우·호랑이의 순서로 나타남을 볼 때¹⁾ 상대적으로 여우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감이 있다.

흔히 여우는 악한 것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고 설화 속에서도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는 흥미롭게도 여우가 지혜를 가진 신적인 존재로 고승의 수도를 돕는가 하면,²⁾ 사미승으로 변해 해악을 끼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등³⁾ 이중적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여우가 처음부터 악의 상징으로만 인식되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유사』에서 여우는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변신을 하고 나타나는데,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상징성

* 성신여대 박사과정.

1) 이상일, 『변신 이야기』(도서출판 밀알, 1994), 94쪽. 참조.

2) 『三國遺事』 권4, 義解5, 圓光西學.

3) 『三國遺事』 권2, 紀異2, 眞聖女王 居隨知.

또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동물이 등장하는 설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인간이 동물을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인간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선악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고, 동물의 판단 능력에 따라 어리석음과 영리함을 부여할 수도 있다. 한편 동물 자체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간의 공리적 필요성에 따라 유용성의 정도로 판단하거나, 인간의 속성을 부여해서 의인화 시키기도 한다.⁴⁾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동물이 우리 설화나 민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며, 집단의 의식과 사상의 반영으로서의 상징성은 무엇인가를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론으로 『삼국유사』에 나타난 여우의 이중성에 착안, 여우의 이중성이 점차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가는 변화 양상으로 논의를 구체화시켜 나아가겠다. 더불어 여우의 불교적 변신이 갖는 의미 또한 논제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삼국유사』의 설화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논의의 진행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은 일정한 범주 내에서 다양하게 이용하고자 한다.

II. 여우의 이중성

1. 지혜의 상징

『삼국유사』에서 여우는 승려의 佛力을 증진시키는 靈物로 등장한다.

원광이 30살 때 三岐山에서 수도하기를 4년 쯤, 부근에 強猛하고 주술을 일삼는 한 비구가 와서 수도했다. 이러기를 2년에 한 神人이 나타나, 그대처럼 수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근처의 비구는 주술을 일삼으니 떠나 달라고 말해 주기를 부탁했다. 원광이 그 말을 전하니, 비구는 狐鬼의 말에 현혹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밤에 신인이 나타나 그 비구를 응징하는데, 산을 무너뜨리고 집을 덮어 버렸다. 다음날에 다시 나타난 신인은 중국으로 가서 불법을 배우기를 권하면서 그 방법을 일일이 일러 주었다. 원광은 중국에 가서 11년 동안 불법을 배우고 돌아

4) 月山 任東權博士 古稀紀念論叢 刊行委員會, 『韓國民俗學의 새로운 認識과 課題』(集文堂, 1996), 386-389쪽. 참조.

왔다. 다시 삼기산으로 가 신인을 만나니, 그 역시 戒를 받아 떠난다면서 그의 팔을 보여주는데 구름 속을 지나 하늘 끝까지 닿았다. 신인이 다시 날짜를 정하여 자신의 혼이 떠나는 것을 보라 하므로, 가 보니 검고 늙은 여우가 죽어 가고 있었다.⁵⁾

흔히 우리의 민속이나 전설, 풍습에서 여우가 惡物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神僧을 탄생시키는 영물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원시 신앙에서는 모든 동물에 정령이 있음을 믿었는데, 출중한 인물에게는 정령의 神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원광의 이야기에서도 여우의 신력은 그에게 결부된 신이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그 신이에 결부된 동물이 여우라는 점이 불교와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여우가 비범한 인물의 신이와 관련되는 또 다른 예로 신화적 성격을 지닌 강감찬 탄생 설화를 들 수 있다. 이물교혼 모티프로 형성된 이 설화에서 강감찬은 주목적 여인으로 변신한 여우와 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로 나타나 있다. 여우는 강감찬 아버지와의 동침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여우인데 아들을 낳아 줄 것이며 그 아이는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밝힌다.⁶⁾ 여기서 여우는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으로서 인간 사회에 비범한 인물을 선물한다. 이 점에서 여우는 자연의 근원적인 힘인 풍요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으며, 특히 원광의 설화와 비교해 볼 때 지혜를 가진 존재임이 드러난다.

여우가 지혜의 상징임을 암시하는 이야기는 몽고 설화에서도 보인다. 白狐 이야기에서 여우는 요괴의 술수로 훔친한 얼굴이 된 공주를 치료하기 위해 헤매는 가난한 젊은이에게 약을 주면서 “나는 이 산에 사는 오래 묵은 암여우입니다. 당신이야말로 공주의 신랑감입니다. 공주의 병이 즉시 나올 즉효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⁷⁾ 여우가 공주를 치료할 약을 가지고 있었고, 젊은이가 공주의 신랑감임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여우가 지혜의 상징임은 자명해진다.

설화 속에서 여우가 지혜와 관련한 풍요를 상징한다는 것은 민속상의 관념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 여

5) 『三國遺事』 권4, 義解5, 圓光西學.

6) 강진옥, 「口傳說話 異物交婚 모티프 研究」, 『梨花語文論輯』 1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 연구소, 1990) 참조.

7) 최인학, 『구전설화 연구』 (새문사, 1994), 238-239쪽.

우와 관련된 민속적 관념은 설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드러내며,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 역시 지혜와 풍요의 의미를 지닌다. 중국 『山海經』에서는 여우가 출현하면 상서로움이 보인다 하여 구미호를 신성한 짐승으로 여겼다. 또한 덕과 간교함을 동시에 지닌 동물로 여겨 역시 『산해경』에서 “덕이 있으면 출현한다.”고 하였다. 『四子講德論』에서도 “옛날 周의 文王이 구미호에 應하여 동쪽. 오랑캐를 귀속시켰다.”고 하여 지혜와 덕을 겸비한 지도자가 출현할 때에는 여우의 신이한 능력이 깃들이는 상서로움이 있었음을 밝혔다. 일본의 경우 일부 지방에서는 여우를 우리 나라의 財産家神인 ‘엿’처럼 섬기며, 여우를 농사의 신으로 여겨 해마다 ‘이나리 마쓰리(稻荷祭)’라고 하여 음력 2월 초 午日에 여우 사당에서 제사를 지낸다 한다.⁸⁾ 따라서 민속상으로 보았을 때에도 동양권을 비롯한 우리 나라에서 여우에 대한 관념의 원초 형태는 지혜와 풍요의 상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우가 지혜의 상징인 것은 그 생태적인 특성에서도 연유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여우는 영리하며 위장술 또한 동물들의 상위에 속한다고 한다. 특히 울음 소리가 아이의 그것과 같아 사람이 곧잘 속으며, 여우를 잡으려고 화약을 묻거나 줄을 걸어 두면 조심스럽게 파 내거나 물어서 질벽에 버릴 줄도 안다 한다. 또한 웅크리고 있는 고슴도치를 앞발로 굴러 물에 넣어 놀라서 날뛰면, 한 쪽 발로 목을 누르고 다른 발로 꺾질을 벗겨 먹기도 한다는 것이다.⁹⁾

결국 여우의 이와 같은 생태적, 민속적 특성과 관념은 설화에 투영되어 신승의 탄생, 이인의 출생, 과제해결의 원조자 등으로 등장하여 지혜와 풍요라는 상징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2. 악의 상징

‘원광서학’의 설화와 달리 『삼국유사』에는 여우가 상서롭지 못한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된 설화가 다수 보인다.

거타지라는 사람이 활을 잘 쏘아 용왕의 부탁을 받고 여우를 퇴치했다는 이야

8) 韓國文化象徵辭典 編纂委員會, 『韓國文化상징사전 1』(동아출판사, 1992), 474쪽.

9) 위의 책, 473쪽.

기에서, 여우는 사미승으로 변신해 용왕 가족의 간을 빼내어 먹고 급기야는 용왕의 간까지 먹으려 한다. 이에 거타지가 활로 쏘아 죽이니 여우가 땅에 떨어져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¹⁰⁾ 여우가 불교와 관련이 있는 사미승으로 변신했다는 점이 주의를 끈다. 원광의 설화에서는 불승의 조력자로 나타났던 여우가 거타지의 이야기에서는 오히려 불승의 모습을 하고 惡物로 등장하고 있다.

거타지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유형인 고려의 건국 신화에서도 여우는 불교와 관련된 변신을 하고는 악물로 등장한다. 태조 왕건의 할아버지 작제군이 부친을 찾아 중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구름과 안개로 인해 3일 동안을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작제군이 바위에 내려서니 배는 나는 듯이 가벼웠다. 이윽고 한 늙은이가 나타나, “나는 서해의 용왕인데 매일 申時에 늙은 여우가 熾盛光如來像이 되어 하늘에서 내려와 경을 읽으면 머리가 몹시 아파집니다. 원컨대 나의 재해를 물리쳐 주오.” 하였다. 때가 되자 공중에서 풍악소리가 들려 왔다. 작제군이 활을 쏘니 늙은 여우가 죽어 떨어졌다.¹¹⁾

여우가 부정적인 악으로 나타나는 것이 원광의 설화와 다르지만, 여우를 용왕조차 대항하지 못할 정도의 조화를 부리는 영물로 설정, 이를 주인공 능력의 신이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점은 같다고 할 수 있겠다.¹²⁾

여우에 대한 부정적 관념은 『삼국유사』의 다른 설화에서도 보이는데, 비행량이 귀신을 시켜 여우로 변해 달아나는 길달을 죽였다는 것이나,¹³⁾ 밀본이 범칙과 함께 늙은 여우를 쫓았다는 이야기¹⁴⁾ 등이 그것이다. 그 외 다른 문헌에서도 여우는 상서롭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구려 차대왕이 사냥할 때 흰 여우가 울어 쏘았으나 맞히지 못하였다. 왕이 무당에게 물으니, “여우는 요사스러운 짐승으로서 상서로운 것이 아닌데다가 그 빛깔이 희니 더욱 괴이하다.”고 했다.¹⁵⁾ 또 백제의 패망을 예고하는 의자왕 때의 사건으로, 여우떼가 궁중에 들어왔는데 흰

10) 『三國遺事』 권2, 紀異2, 眞聖女王 居陋知.

11) 『高麗史』 권1, 世系.

12) 조동일은 거타지 설화를 다루면서 작제군의 이야기와 함께 「용비어천가」 22장의 度祖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원래는 용과 용의 싸움이었을 것인데 거타지 설화의 경우 불교적인 요소가 보태져서 변한 것이라 하였다.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集文堂, 1990), 53-54쪽.

13) 『三國遺事』 권1, 紀異1, 桃花女 鼻荊郎.

14) 『三國遺事』 권5, 神呪6, 密本 摧羅.

15) 『三國史記』 권15, 高句麗本紀 次大王.

여우 한 마리가 상좌평의 책상에 올라앉았다는 것에서도 동일한 관념을 볼 수 있다.¹⁶⁾

이렇게 여우가 악물로 상징되는 이유는 그것이 죽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민간의 속신에서 여우의 울음은 죽음을 의미하여 “북쪽에서 여우가 울면 그 동네에 초상이 난다”고 하였다. 이 때 북쪽은 묘지가 있는 北郎山을 상징하며 陰과 暗을 가리킨다. 그리고 여우는 무덤을 파서 시체의 간을 빼먹는다는 속신이 있으니, 북쪽에서 우는 여우의 울음은 죽음을 알리는 소리로서 이는 저승사자의 출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거타지 이야기에서 여우가 용왕의 간을 빼먹으려 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또한 “앞산에서 여우가 울면 訃音이 들어오고, 뒷산에서 여우가 울면 사람이 죽는다.”고 믿었는데, 앞산은 밝은 쪽.이므로 여우가 죽음을 알린다 해도 우리 집이나 동네를 벗어나 부음 정도로 그친다. 그러나 뒷산은 무덤이 있는 나쁘고 어두운 곳이므로 죽음이 가까운 곳에서 일어남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여우가 불길함과 죽음을 암시함을 드러내는 예는 허다하다. 길을 갈 때에 여우가 가로질러 가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였고, 일이 낭패한 경우에 “金井(무덤 등을 팔 때 치수를 재기 위하여 놓아두는 자)을 놓아 두니 여우가 지나간다.”는 속담을 쓰기도 한다.¹⁷⁾ 결국 여우는 민간에서 죽음을 알리는 死神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니,¹⁸⁾ 설화 속에서 악물의 역할을 하기에는 적격이었던 것이다.

여우가 부정적인 상징을 지니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오히려 상서로운 것으로 인식되었던 지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혜란 지나치면 간교함 내지 교활함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은 것이니, 오늘날까지도 민간에서는 간사하거나 약아빠진 사람을 두고 ‘여우 같은 인간’ 혹은 ‘백여시’라고 말한다. 여우의 이러한 간사함과 교활함은 변덕스러움과 아첨으로 연결된다. 별이 나 있는 상태에서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나, 반대로 눈비가 오다가 잠깐 별이 나는 것을 두고 ‘여우비’, ‘여우별’이

16) 『三國史記』 권28, 百濟本紀 義慈王.

17) 韓國文化象徵辭典 編纂委員會, 앞의 책, 472-474쪽. 참조.

18) 일본에서는 사람이 여우에게 흘려서 생긴 정신병이나 그 환자를 ‘기쓰네 쓰키(狐憑き)’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 ‘여우에게 흘리는 것’은 잠깐의 망각이나 혼비, 착각을 뜻하는데 비해 ‘기쓰네 쓰키’는 정신병과 같이 심각하다. 또한 ‘기쓰네 쓰카이(狐遣)’라는 말은 여우의 힘을 빌려 요술을 부리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위의 책, 474쪽). 이때 여우에게 흘린다는 것은 혼을 빼앗기는 것으로, 역시 죽음의 상태와 다르지 않다.

라 하는 것은 그 변덕스러움을 이른 말이고, 경국지색으로서 간사하고 음흉한 왕비를 '金毛九尾'로 비유하거나 간신배를 '狐鼠輩'라 하는 것 등은 요사스럽고 아첨하는 것을 이른 말이다.

이상과 같은 여우의 악물로서의 상징은 오늘날까지 설화 속에 남아 전승되고 있다. 그 자세한 예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3. 이중 관념의 변화

여우뿐만 아니라 긍정적, 부정적 관념이 공존하는 동물은 많다. 비교적 종합적인 연구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호랑이의 경우,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존경의 대상이 되는, 성스러우면서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 양면적 특성을 주목한 연구도 있고,¹⁹⁾ 호랑이가 전설에서는 신격이나 인간과 대등한 입장으로 나타나 가해 혹은 원조를 하는데 비해 민담에서는 매우 어리석고 겁쟁이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밝힌 논의도 있다.²⁰⁾ 또한 개의 경우에도 설화, 민요, 속담을 통해 보았을 때 전형적인 충의 실천적인 동물과 비천한 개의 본성이라는 양면성을 드러낸다.²¹⁾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 본 여우의 이중성은 호랑이나 개의 경우처럼 오늘날까지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삼국시대 이래 점차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왔다. 즉 사람의 간을 빼먹는 교활한 악물로 상징되어 설화를 비롯한 민속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여우의 악물로서의 상징은 오늘날 설화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여우누이」, 「여우구슬」 이야기를 비롯해 사람으로 변신한 여우를 때려잡아 그 본색을 드러내게 하는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사람의 집안에 딸로 태어나 소와 집안 식구, 심지어 동네 사람들까지 잡아먹는 「여우누이」 설화는 간을 빼먹는 죽음의 사신이라는 민속상의 관념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고, 총각이나 도령의 혼을 구슬로써 빼앗으려 했던 「여우구슬」의 경우도 혼을 빼앗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므로 같은 관념의 소산이라 보여진다. 또 사람으로 변신한 여우를 강감찬이나 유미암 같

19) 황태강, 「民族說話에 나타난 호랑이」, 『한국문학의 이해』(새문사, 1991).

20) 장덕순, 「虎설화」, 『한국설화문학연구』(서울대출판부, 1987).

21) 김종대, 「개피의 상징과 민속」, 『중앙민속학』 6호 (중앙대 한국민속학연구소, 1994).

은 잘 알려진 인물이 퇴치하거나, 소금장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때려 죽였다는 이야기에서도 악의 상징으로서의 여우 모습이 잘 드러난다. 다만 「여우구슬」의 경우 여우에게서 구슬을 빼앗아 삼킨 주인공이 하늘이나 땅의 일에 통달하게 되었다는 뒷부분의 이야기는 여우가 상당한 지혜와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라 할 수 있겠고, 강감찬 같은 인물이 다른 사람은 못 알아 본 여우 신랑을 때려 죽였다는 이야기는 그의 영웅으로서의 비범함을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밀본 스님이나 작제건 설화에서 그들의 신이함을 나타내려고 여우를 등장시킨 것과 같은 경우라고 하겠다.

결국 여우의 긍정적 면인 지해도 묘사한 것으로 간주되고, 신이한 능력으로 신승 탄생에 도움을 주는 여우보다는 간악한 요물로 영웅의 이인다움을 강조하는 여우의 이미지가 더욱 강력한 것으로 남아, 오늘날 여우는 죽음과 교활함을 상징하는 악물로 고정되어 버렸다.

Ⅲ. 불교적 변신의 의미

지금까지 살펴 본 설화 속에서 여우는 지혜를 상징하던 악물로 나타나든 간에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변신의 양상을 보인다. 그 까닭을 추측해 본다면 먼저 『삼국유사』 설화에 국한할 경우 승 일연의 불교적 윤색일 수도 있겠고, 여우가 불교와 관련을 지닌 동물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여우가 불교적 변신을 하면서도 앞서 드러난 것과 같은 이중성을 보임에 착안, 다른 각도에서 불교적 변신의 상징성을 찾아 보고자 한다.

1. 불교적 변신의 이중성

거타지 설화에서 서해의 용왕은 “나는 서쪽. 바다의 신이오. 매양 한 중이 해 뜰 때면 하늘에서 내려와 다라니 주문을 외우고 이 못을 세 번 돌면 우리 부부와 자손들이 모두 물에 뜨게 되는데, 중은 내 자손의 간장을 빼 먹곤 하오. 이제 우리 부부와 딸 하나만 남았소. 내일 아침에 또 반드시 올 것이니 그대는 중을 활로 쏘아 주시오.” 라고 거타지에게 부탁을 한다. 이에 거타지가 활로 쏘아 중을 맞히

니 중이 늙은 여우가 되어 떨어져 죽었다는 대목이 보인다.²²⁾ 이와 비슷한 유형의 작제건 이야기에서도 여우는 빛나는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 응중경을 외우며 용왕을 괴롭히며, 작제건은 부처와 너무나 흡사한 여우의 모습에 감히 활 쏘기를 주저했다는 부분이 보인다.²³⁾ 또한 밀본 스님의 이야기를 보면, 선덕여왕 덕만이 병을 얻어 오랫동안 낫지 않자 흥륜사의 중 법척을 불러 치료케 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그리하여 밀본법사에게 병의 치료를 부탁하니 '약사경'을 읽어 병을 낫게 하고, 육환장으로 법척과 늙은 여우 한 마리를 찢러 죽였다 한다.²⁴⁾ 이 대목에서도 여우는 직접 불교적 변신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척이라는 중과 함께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우가 악물의 상징으로 나타날 경우에도 불교와 관련된 변신을 하고 나타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삼국시대 이래로 여우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악과 죽음의 상징이라는 부정적 면모를 강하게 보이기 시작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승려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처의 모습으로까지 나타나면서 오히려 악물의 속성을 지닌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설화를 좀더 면밀히 살펴 본다면 불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광서학』에 보면 '사람 됨됨이가 사납고 주술 배우기를 좋아하는 중'이 원광이 수행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고 있자, 신의 모습을 한 여우는 원광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잘도 하십니다, 잘도 하십니다. 당신의 수행이여! 무릇 수행하는 이가 많지만 법대로 하는 이는 드뭅니다. 지금 이윗에 있는 중을 보니 주술을 곧잘 닦지만 소득은 없을 것이요, 소란한 소리는 남의 靜念을 괴롭히며 그 거주한 곳은 내가 다니는 길에 방해가 되므로, 언제나 왕래할 때마다 미운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법사는 나를 위해 그에게 말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해주시오. 만약 오래 머문다면 아마 내가 문득 죄업을 저지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우는 주술을 행하는 중을 극히 혐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앞서 든 다른 설화에서는 오히려 주술을 일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주술에 대한 여우의 이러

22) 『삼국유사』 권2, 紀異2, 眞聖女王 居陲知.

23) 『高麗史』 권1, 世系.

24) 『三國遺事』 권5, 神呪6, 密本摧邪.

한 이중적인 태도는 여우의 긍정적, 부정적인 면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니, 즉 긍정적 이미지의 여우는 주술을 혐오하는 양상을 보이며 부정적 이미지의 여우는 주술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우가 불교적 변신을 함에 있어서도 주술과 맞물려 이중적인 면모를 드러냄을 알 수 있다.

2. 불교적 변신의 의미

그렇다면 여우가 불교적 변신을 하면서도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 측면을 보이는 것은 '주술'의 명확한 구명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불교에서 주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충분히 암시되어 있는데, 불교에서 보는 주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적 또는奇瑞는 높은 경지의 수행자에게 나타나는 초능력이며 불교에서는 善定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일상적인 힘으로 본다. 즉 五慾을 버리면 선정을 얻을 수 있고 이 선정의 부수적 결과가 신통인데, 또한 신통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를 自性으로 삼아야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수행자에게 나타나는 이 기적의 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발휘되거나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기 위해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共業의 일종이며 善業을 전제로 해서 소용되는 종교적 의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신통, 神變, 초능력의 발휘가 害他利己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詐術에 불과하다. 따라서 세간의 마법적 주력과 불교의 신통 신변이 나타내는 기적, 기서가 다른 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다수와 진리를 위한 것인가의 차이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육통삼명²⁵⁾을 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신통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것이 종종 마법의 주술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불교적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신통력이 주술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불교의 신통력과 세간의 주술이 구별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신통력이 불교적 제어력을 상실할 때 마법의 주술로

25) 이러한 불교적 신변, 신통력 즉 감통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바 '六通三明'이라는 것으로 먼저 육통은 육신통이라고도 하며 神足通, 天眼通, 天耳通, 他心通, 宿命通, 漏盡通 등이 그것이다. 삼명은 특별한 수행자가 가질 수 있는 세 종류의 초인적 능력으로 宿命明, 天眼明, 漏盡明이 속한다. 이와 같이 '육통삼명'은 예사 사람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초인적 정신력을 의미한다. 홍기삼, 『항가설화문학』(민음사, 1997), 410-411쪽. 참조.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석존은 대부분의 신통력을 경계하였다.²⁶⁾ 이러한 석존의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일반적 의미의 주술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며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불교권 내부에서도 呪, 呪文, 神呪, 密呪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신주신앙은 불가사의한 靈應力을 믿는 불교의 한 신앙 형태로 이른바 眞言과 陀羅尼를 중심으로 한 밀교가 그것이다. 신통력이 세간의 주술과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밀교의 주술 역시 차이를 보인다. 즉 주술이란 인간이 귀신에게 신힘을 비는 행위라면 신주는 불보살의 자비원력에 힘입은 신비롭고도 불가사의한 영응력으로 규정된다.²⁷⁾ 이상의 고찰을 통해 일반적 의미의 주술과 불교적 신통력은 구별되는 것으로서, 특히 불교권에서는 주술을 경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우의 불교적 변신이 보이는 앞의 설화들에서 이러한 불교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원광서학」에서 본래가 여우인 신은 주술을 일삼는 중을 미워하여 징벌하였고, 거타지가 물리친 여우는 다라니경을 외우며 용왕을 괴롭혔다. 또한 작제전 이야기에서의 여우는 부처의 모습으로까지 둔갑하는 주술을 펼친다. 불교에서 세간의 마법적 주력을 심히 경계하였던 것은 특히 밀본법사의 설화에서 잘 드러난다. 이 설화에서 밀본의 도술은 법칙의 도술과는 차원이 다른 불교적 신통력이요, 법칙은 요사한 여우와 함께 밀본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결국 법칙의 도술은 불교적 의미에서 볼 때 사술, 즉 세간의 주술이라는 암시를 읽

26) 고대 인도인들은 종교적으로 높은 경지에 도달한 수행자의 경우 때때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러한 능력은 때때로 마법의 주술로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석존은 다소의 神變을 제외하고서는 진부 멀리하였다. 『長部經典』(2, 24권)에는 모든 장소에 신체를 출몰시키는 신통신변이나 타인의 마음을 아는 記心神變은 '내게는 환상과 같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물리쳤고, '너희들은 이렇게 구하라. 이처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꿈고 이것에 이르러서 살아라.'고 말하는 教誡神變만이 推稱되고 있다. 이것은 행위의 규범이나 도덕률 같은 것으로 현실의 인간적 노력을 기다려 마침내 완성하는 것이다. 때문에 신통은 '신앙이 두터운 남자에 의해, 분투에 의해, 불굴의 의지력에 의해, 인간의 힘에 의해, 인간의 정진,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인내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경전은 말하고 있다.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진 자가 노력을 거듭해 갈 때 자신도 뜻밖인 만큼 큰 힘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것을 '교계신변'이라 부르고 그 밖의 기적, 기서는 비록 존재할지라도 본질적인 의의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불교의 입장인 것이다. 홍기삼, 앞의 책, 409-410쪽. 참조.

27) 김영태, 「삼국시대의 신주사상」, 『한국밀교사상연구』(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78), 36-37쪽.

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우의 불교적 변신의 이중적 양상에 내포된 상징적 의미는 선정의 결과로 비롯된 신통력과 사악한 세간의 주술을 구별하고 후자를 경계하려는 불교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즉 그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여우를 설화 속에서 적절히 수용하고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IV. 결론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여우의 이중적인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여우가 지혜와 악이라는 상반된 상징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음을 고찰해 보았다.

첫째 「원광서학」에서 여우는 승려의 득도를 돕는 신적인 존재로 나타났는데, 여우가 지혜로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예는 강감찬 장군의 탄생설화와 몽고의 설화에서도 보인다. 또한 민속상에서도 여우는 지혜와 풍요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생태적인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역시 지혜를 지닌 동물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진성여왕과 거타지」, 「밀본최사」 등의 설화에서 여우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생명을 위협하는 악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 외에 거타지 설화와 비슷한 유형인 작제건의 이야기나 비형랑과 같은 설화에서도 악의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민속상 여우가 사람의 간을 빼먹는 죽음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즉 여우는 민간에서 죽음의 사자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긍정적 측면인 지혜가 교활함과 간교함으로 전이되어 부정적으로 작용한 데서도 기인한다.

셋째 여우의 이중적 상징은 점차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여우누이」, 「여우구슬」 등의 이야기와 여러 이인들이 사람으로 변신한 여우를 때려 잡는 설화 유형들에서 악물의 이미지로 고정되어 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여우가 주로 불교와 관련이 깊은 변신을 하면서도 '주술'이라는 요소와 맞물려 역시 이중적 양상을 보임에 착안,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곧 불교적 신통력과 세간의 마법적 주술을 구별하고자 하는 불교적 의도를 위해 설화 속에서 여우를 적절히 수용하고 활용한 것으로 보여진다.